# 술 끊듯이 은(銀)과 금(金)도 끊자

## (민7:1~89)

10.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3.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4. 또 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15.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16.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17.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18절부터는 똑같은 내용의 헌물을 열두지파가 하루 한 지파씩 매일 돌아가며 번제단에 봉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술만 끊지 말고 은(銀)과 금(金)도 끊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술만 끊지 말고 은(銀)과 금(金)도 끊자'

인삼주, 과일주가 있는 것처럼 은과 금도 은술 금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안 먹는 기독교인들에게 금주(禁酒)는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건강상의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술의 칼로리가 높아서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고, 술에 의존한 생활패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금주 문제가 필사의 각오로 도전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제 나실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고 그 의미를 지배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의 말씀이 나왔었고 레위기에서 본격적으로 율법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들어와서 이제 곧 며칠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하

게 되는데, 그 행군 직전에 율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온 말씀이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나실인의 규정이 담고 있는 문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을 함축해서 말하면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취할 경우에는 쓸데없는 곳에 기운을 쓰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시체에 손을 대는 일'은 우리가 취했을 때의 나타나는 것이 술주정과 주사로 하나님의 뜻 안에 없던 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한다.'는 문제가 선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됨을 나실인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인데, 취함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와 특별히 다른 신앙적인 미덕은 금주, 금연입니다. 이것이 교단별로 많이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지만 그 교단의 교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므로 교단에서 허용하도록 법이 고쳐졌는데도 목사님들은 몰래 술과 담배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교인들에게는 금주, 금연의 아름다운 정서가 남아있습니다만, 불행한 일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심어준 금주, 금연의 미덕을 지켜오면서 술과 담배로부터는 교인을 지켰는데, 은과 금에 교인의 영혼을 내주는 불행한 현실이 되고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금과 은도 술입니다. 마시는 술보다 더 치명적인 술입니다. 교회도 교인도 전부 은술 금술에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금주(禁酒)만 할 것이 아니라 은과 금도 끊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사님의 관심이 재정에 다 가있습니다. 재정이 있어서 예배당도 짓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도 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에 뻐기기도 합니다. '뻐긴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회동기로 작용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당과 교인숫자에 대해 부러워하는 것이 큰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재정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교회의 현실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당회도 은술과 금술에 취해서 교회 안에서의 언행이 술주정이고 주사를 부리는 것입니다.
행3: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말은 은과 금이 내게 한 푼도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원한 것도 거금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앉은뱅이에게 던져줄 동전 한 닢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은과 금을 들여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은 좋아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로 생각해서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앉은뱅이를 보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의 주머니 안에는 은과 금이 없고, 내가 너에게 주려면 네게도 좋고 나도 좋다고 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은과 금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의 주머니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은과 금은 안 주겠다는 것이지 실지로 주머니 안에는 동전 한 닢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은술과 금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간 마음의 지성소에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서 들여놓으면, 아직 내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의 규정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잘못된 상태에서 내가 좋다고 판단해서 마음에 들여놓는 모든 것들이 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술, 돈 술, 건강 술, 승진 술, 결혼 술, 일류대학 술, 명품 술 등이 다 술이고 이것들의 대명사가 은술과 금술입니다. 이것을 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2개월 만에 도착하여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계수를 했고, 2월 8일에 도유식(성막에 기름을 바름)을 하고 낙성을 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오늘은 2월 8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봉헌할 때에 예물로 소와 수레를 드렸습니다. 레위 자손이 성막을 옮길 때에 품목마다 무게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서 수레와 소를 주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즌1 설교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본문은 성막 중에서도 번제단의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봉헌식이 훨씬 더 거창하고 예물도 종류와 양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번제단의 예물을 드리는데 열두지파가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지파씩 은쟁반과 은주발을 드리고 손잡이가 달린 작은 금그릇을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에 사용될 제물들을 드리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금과 은을 드릴 때에 귀중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소제와 향을 채워서 드린다는 것도 이상하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곁들여서 드리는 것이 소제이고 향도 마찬가지로 태워서 드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금그릇과 은 그릇에 따로 받아와서 드린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12일 동안 매 지파마다 하루에 한 번 씩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이라고 하지만 열두지파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지파가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서 제사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250만 명이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2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서 헌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뜻하는 것은 금 그릇에 향을 채우고 은 쟁반과 은 주발에 소제를 채웠습니다. 향은 기도를 뜻하고, 소제는 시간을 뜻합니다. 신약의 말씀대로 하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소제와 향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임으로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일 기뻐해야지, 5년 뒤에 아파트를 사서 기뻐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마다 기뻐하도록 시간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므로 오직 내게 주어지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만이 참 시간이므로 소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도 기도인데 소제의 의미를 은 그릇에 담고 향을 금 그릇에 담은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의 기도를 말하고 이 향이 기도이면서 추구하는 것인데 금과 은에 담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은안의 소제와 금안의 향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금으로 기뻐하기를 원했고 은으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담았다’는 얘기는 ‘쉬지 않고 금을 추구하고 은을 추구했다’는 우리의 상태로 그러한 인격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이고 번제단에서 제물들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번제단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인데, 항상 은으로 기뻐하려고 했고 쉬지 않고 금을 추구했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과 은은 선악판단을 하게 된 이후에 그동안 나를 취하게 하고 나에게 주사와 술주정을 부리면서 살게 했던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담았는데 소제는 항상 기뻐함과 연결이 되는데 항상 은으로 기뻐하려고 했고 금으로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금 그릇 안에 향을 담았는데 기도이고 추구입니다. 항상 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금을 추구했던 내가 번제단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번제단의 필요를 경배하는 것으로 번제단의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금술에 취하고 은술에 취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마음의 지성소 안에 금이 들어와 있고 은이 들어와 있고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이 땅위에서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여놓고 취해서 술주정하고 주사를 부리며 살았던 그 모든 죗값을 속죄제로 속죄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의미가 거기 있으므로 속죄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허락된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항상 기뻐하되 은과 금으로 기뻐하려고 했던 내가 죽고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이며 쉬지 않고 금을 추구했던 내가 이제는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번제단을 봉헌하는 예식 속에서 12일 동안 반복되면서 250만 명이 각 지파의 대표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동참하면

서 12번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금주의 각오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의 술, 그 술을 먹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열두지파가 똑같은 제물을 12일 동안 12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열두지파가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50만 명이 12번 드리는 모든 제물에 다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재미있습니다. 12번을 금과 은에 취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이제는 2월 8일에 성막 도유를 해서 봉헌을 하고 이어서 번제단을 봉헌하는 예식을 날마다 12번을 치른 다음에 19일 날 끝이 납니다. 2월 20일은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행군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복지를 행군하기 직전에 은술과 금술에 취하지 않는 금주의 각오를 12번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客)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500년 전에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되었던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떳떳한 선민의 주체를 느끼면서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삶의 장이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이집트의 집만 지어주고 이집트에 속한 땅만 경작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내 땅을 내가 갖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내 밭을 내가 경작하고 내 집을 내가 짓고 주인으로 복지에서 어엿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의 삶이 시작되려고 하는 직전에 그것을 향해 가는 행군 바로 전날 까지 12번 반복해서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땅에서 좋다고 여기는 술들에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12번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때에 그 젖과 꿀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금과 은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결코 취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복지에서 내게 만나지는 금과 은, 젖과 꿀, 그 땅의 모든 풍요로운 소산들의 모든 좋은 것들은 내 앞에서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면 '아예 가지를 말지. 복지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정도로 나는 하나님으로 이미 기쁜 사람이 될 바에야 사막에서 그냥 살면 그만이지'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를 주고 싶은데 복지에서 솟아나는 모든 땅의 좋은 것들에 대해 절대 취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복지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지요?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 복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한 조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내가 은술과 금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어야 복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복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선민이 풍요와 다산인 금술과 은술에 취해서 복지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복지를 살 수 있는 조건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복지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취하지 않을 수 있으면 복지가 열려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에덴인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좋다는 판단이 없으니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에 들여놓는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취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취하는 일이 없으니 에덴이 되고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일이 어떻게 하든지 은술을 마시고 금술을 마셔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은술과 금술에 절어있는 상태에서 술주정을 부리고 주사를 부리면서 전부 돈 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마시는 술도 왜 마셔요? 은술과 금술에 취해있고 그것이 안 벌린다고 마시고 그것을 벌게 되었다고 마시는데 복지는 취하지 않을 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에 취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은 그릇에 소제를 담고 금 그릇에 향을 담아서 드리고 그것과 함께 번제의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과 화목제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십자가 제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데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로 기뻐하기를 원했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하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이고 은술에 취하고 금술에 취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술과 금술을 금주할 수가 없어서 은술과 금술에 절어있는 내가 아예 죽어버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금술과 은술에 절어있는 내가 죽고 항상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했고 항상 그것 때문에 불만이고 쉬지 않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던 내가 죽어버리면 복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지가 주어지고 있는 동안에 복지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은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술 은술에 절어있는 내 존재가 죽고 죗값이 다 치러지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복지가 주어지고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사명의 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제 2창조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은술과 금술을 끊는 것입니다. 은술과 금술을 끊는 방법은 은술과 금술에 절어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 주사를 부리는 것이고 술주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술주정을 하고 있는 한 복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불평합니까? 자식이라는 술에 취해있는 것이고 자식이 잘돼서 기뻐합니까? 그것도 주사요, 안돼서 불평하면 그것도 주사입니다. 주사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고

불평불만하고 시체를 만지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시체로 사업이 잘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되는 것도 시체일 수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서 좋다고 하는데 이게 술 취함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복지를 향해 행군하기 직전 바로 전날까지 12번을 반복하면서 다짐하게 하신 것이 번제단의 봉헌을 통해 금주의 다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다짐한다고 될 일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이 은술과 금술에 절어버린 내가 죽은 것으로 믿으므로 금주할 수 있고 복지를 향한 완벽한 걸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금술과 은술에 절어있는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먹음으로써 이 세상의 어느 것에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으로 배부름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복지의 땅, 사명의 땅이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